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성막으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

성경: 출 26:15, 24, 26-29, 요 17:21-23, 엡 4:2-3

- I.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하나는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성막으로 예표된 하나이다. 성막의 마흔여덟 개의 널판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된 믿는 이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막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다.
- II.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첫째 방면은 (매는 띠들을 끼워두는 곳인) 세 개의 금 고리에서 볼 수 있다. 세 개의 금 고리는 믿는 이들을 하나로 매어 주시는,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초기의 영, 거듭나게 하고 도장 찍으시는 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상징한다—출 26:15, 24, 29, 요 3:6, 엡 1:13, 4:3, 30, 비교 창 24:22, 눅 15:22.
- III.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둘째 방면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이 입혀진 (인성을 가진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널판에서 볼 수 있다—출 26:29.
 - A. 성막의 널판들의 하나는 조각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입혀진 금 안에 있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가 우리의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묘사해 준다—요 17:21.
 - B. 널판들의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의 빛남, 곧 금의 표현 안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한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빛남, 그분의 표현 안에 있다—요 17:22-24.
 - C. 금으로 예표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신 초기의 영께서 그 영의 하나이시다(엡 4:3). 그러므로 금으로 입혀지는 것은 사실상 하나가 확산되는 것이다.
 1. 우리가 금으로 더 많이 입혀질수록, 우리는 하나를 더 많이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하나는 더 강해진다—비교 골 2:19.
 2. 우리는 금으로 입혀지는 대신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처럼 단지 금도금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금의 분량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계 17:4.
 3. 널판들은 충분히 금으로 입혀질 때만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임을 가리킨다—요 17:23.
 - D. “하나님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주님의 회복은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회복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금의 실지 무게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주님의 회복은 회복하신 백성을 그분 자신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리 메시지, 138-139쪽)
 - E. 하나는 우리가 금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삼일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이다—골 2:19, 빌 3:8하.
 1.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다. 금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모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2.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진정한 하나가 필요하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회복 안에서 전진할 수 없다.

3. 이러한 견고하고 참된 하나 안에 지켜지는 유일한 길은 체험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갖는 것이다—빌 3:10.

F. 하나님의 금의 본성은 결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위에 입혀지지 않고, 조각목으로 상징된 우리의 거듭나고 변화된 본성에만 입혀질 것이다.

1. 금으로 입혀지는 것은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난다. 어디든 변화가 있는 곳에는 금으로 입혀짐도 있다.

2.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것이다—롬 8:4, 빌 1:19-21상.

3. 우리가 모두 변화되고 금으로 입혀질 때에만, 우리 가운데에는 더 이상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한 안전장치는 금으로 입혀지는 것이다—고후 3:18, 롬 12:2.

IV.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셋째 방면은 마흔여덟 개의 널판들을 함께 붙잡아 주고 그 널판들을 하나 안으로 이끌어 주는 때는 띠들에서 볼 수 있다. 하나로 매는 이 띠들은 초기의 영계서 하나로 매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연결시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출 26:26-29, 엡 4:3.

A. 매는 띠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은 있는 힘을 위한 것이었고, 금으로 입혀진 것은 하나로 매기 위한 것이었다. 띠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영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과도 연관이 있음을 가리킨다—비교 엡 4:2, 각주 1.

B. 사실상, 하나로 매는 띠들은 성령만을 상징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롬 8:16), 곧 신성과 인성을 모두 포함한 연합된 영을 상징한다.

C. 성막의 널판들을 하나로 매는 일에는 띠들을 각각의 널판에 있는 고리들을 통과시켜 널판들을 함께 연결하는 일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영이 그 영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로 매시는 영계서 그들을 통과하시어 그들을 다른 믿는 이들과 연결시키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하나로 매어진다는 것을 상징한다.

D. 하나로 매시는 영계서 우리를 통과하시어 우리를 다른 이들과 연결시키시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서로를 매는 영계서 언제나 세워진 널판들을 가로지르시기 때문이다—마 16:24.

1. 그 영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는 그 영에 의해 적용되며, 십자가는 그 영을 더 많이 가져다준다—출 30:22-25, 빌 1:19.

a.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며, 십자가는 그 영에 의해 적용된다—고전 1:23, 2:2, 갈 5:22-24, 빌 3:10, 롬 8:13.

b.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체험은 생명의 영을 넘치게 가져온다—갈 2:20, 요 12:24.

2.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함께) 가로지르시는 영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로 합해진다. 우리의 영이 가로지르시는 영과 하나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로 매시는 영을 체험한다.

3. 초기의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로 매시는 영이 되셔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와 건축을 갖게 되고 의견 대립과 분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